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아랫물이라도 맑자

김한봉 | 시사평론가

새해가 밝았다. 모든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지만 언제까지 위정자들만 탓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라는 속담을 이제는 윗물이 설사 더럽다해도 '아랫물이라도 맑자' 로 바꾸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거지가 정승을 동정

고사에 '결인연천(乞人燃天)'이라는 말이 있다. 글자대로라면 '거지가 하늘을 걱정한다'는 말이지만 이는 거지가 '정승(政承)을 동정한다.'는 뜻이다.

또 우스갯말로 다리 밑에 사는 거지 부자(父子)가 어느 부잣집에 불이나 구경하는 데 집주인이 가솔들을 찾노라 울부짖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불을 끄라 가재도구를 건지라 법석을 떨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거지가 "아버지 우린 집이 없으니 불 날 걱정은 없어 응?" 하고 말하니 애비 거지는 "다 네 애비 덕분인 줄 알아라"고 했다고 한다.

높은 벼슬자리 한번 앉아보지 못하고 또 가진 것도 없어 자식들에게 넉넉한 용돈도 주지 못하게 그저 부끄럽게만 여겨왔는데 요즘은 사정이 좀 달라졌다.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 대도(大盜)로 몰려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죄인 신세가 되었는데, 세상을 몽땅 사 버릴 듯이 엄청난 재산을 모아 웬만한 사람은 그 앞에서 고개조차 함부로 들지 못할 만한 재벌들이 사직당국에 불려가 고초를 겪고 있다. 또한 마치 벌떼처럼 침을 뽑아들고 에워싸는 취재진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달아나다시피 피해가던 모습이 어제의 일만은 아니고 보니 도대체 그 끝자락이 언제쯤이나 끝날지는 안타깝고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또 앞의 거지 자식과 그 애비 사이에 한 말이 생각나 자식들 앞에 못난 아버지가 결코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진정한 사람은 도리를 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은 비단 기독교의 십계명이나 불가의 십계에서

많이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도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배움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벼슬자리의 높고 적음에 관계없이 가진 것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법도요 상식이다. 따라서 이를 어겼을 땐 남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함을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인간 취급을 받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물의 영장' 이라고 뽐낸다. 이는 '모든 것 앞에 가장 귀중하고 영묘한 존재' 라는 뜻이다.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만이 불리워지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은 아닐 것이다. 여느 동물이 흉내 낼 수 없는 도덕과 도리, 순리와 의리 그리고 엄치를 알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를 행하는 사람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겠다. 아무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도 이를 행하지 못하면 '유사인간(類似人間)' 이랄 수밖에 없다. 아니 여느 동물만도 못하다고 하겠다.

누가 사람됨을 원하지 않을까

시경(詩經)에 '녹자득이 부독식, 명초제록화공식(鹿者得餌 不獨食, 鳴招諸鹿和共食)'이라는 글귀가 있다. '사슴은 먹이를 얻으면 혼자 먹지 아니하고 여러 사슴을 불러 사이좋게 같이 먹는다'는 뜻이다. 특히 이말은 군왕(君王)이 교훈으로 삼았던 구절이다. 그러기에 필자는 동물의 무욕(無慾)을 배울때라고 강조하고 싶다. 또한,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동물의 세계'를 가장 즐겨본다. 동물이야기를 하다보니 '조지·오웰'이 쓴 동물농장이 생각난다. 쿠데타로 농장주인을 축출한 동물들은 '스노볼'이란 돼지가 통치권을 거머쥔 뒤 비둘기를 날려 정보를 알아오게 하고 양떼들에게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고 노래 부르게 하여 자신을 승배토록 강조했으며 사냥개 떼를 앞세워 신변보호를 하게 하는 한 편 힘이 센 말에게는 먹이를 나르도록 강요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동물에게 "침대에서는 자지 않을 것이며 기름진 음식과 양주 따위는 먹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는 당초 약속을 버리고 호의호식하다가 결국 최후를 비참하게 맞는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은 1950년대 '스탈린'을 겨냥해서 쓴 오웰의 대표작이다. 그러나 스탈린이 죽고 없는 오늘에도 이 책 속의 구절 구절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읽기를 권하고 싶다.

왜 뒷물만 맑기를 기다릴까

우리 모두 언제까지나 위정자만을 쳐다보면서 눈을 흘기고 욕설을 퍼부으며 허탈감에 빠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마저 그러치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억지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라는 속담을 '윗물이 설사 더럽다 할지라도 '아랫물이라도 맑자.'로 바꾸면 어떨지 제언하고 싶다. 또 한해가 시작되었다.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